

10주년 기념 대공연

'94

한·국·무·용·제·전

THE 10TH KOREA DANCE FESTIVAL

서울

문예회관 대극장

1994. 4. 16~4. 18 (오후 7시)

4. 16 (토) 두리춤터(배상복)/창무회(김용복)

4. 17 (일) 한무회(성재형)/최은희 무용단

4. 18 (월) 정혜진 무용단/설무리(송혜순)



■ 주최 : (사)한국무용연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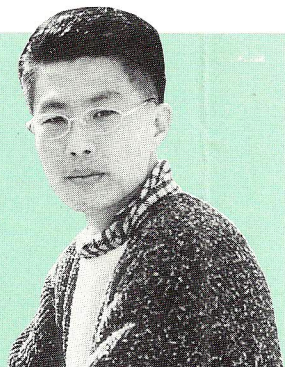
■ 후원 : 문 화 체 육 부

■ 공연문의 TEL : (02) 533-2141 (아간) 595-2195 FAX : 537-3517

한국무용제전은 국제연맹이 주관하고 ITI (INTERNATIONAL THEATRE INSTITUTE),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국제무용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1985년 문화방송, (사)한국무용연구회가 함께 개최한 축제전이다. 본 제전은 매년 이 기간에 무용을 통한 국제간의 이해를 증진, 인간의 단결과 세계보존에 힘쓸 것을 기대하는 뜻에서 개최되어 왔다.

'94 한국무용제전은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서울 문예회관의 신작무대,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의 경기무용인의 밤, 우수작품 리바이벌 무대로 보다 내실있는 축제전으로 기억 될 것이다. 이번 축제전은 문화의 집중적 현상을 탈피한 미래지향적인 춤문화 형성을 유도하고자 한다.

두리춤터(배상복)



- 원광대학교 강사
- 서울시립무용단 수석단원

두리춤터는 1990년 창단되어 자체 전용소극장과 함께 무용단을 두어 춤의 전문성과 예술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그동안의 공연활동을 통하여 한국춤에서는 극히 제한적이던 표현의 자유를 획득하였으며 한국춤의 다양한 소재개발과 독창적인 표현 기법을 통해 기존의 한국춤 형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춤형식을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이를 토대로 한국춤의 대중화 작업에도 앞장서는 등 새로운 춤문화의 형성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한무희(성재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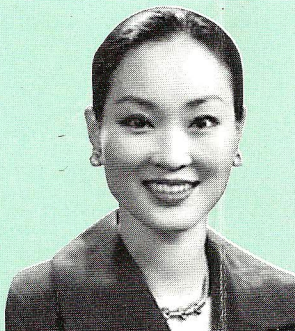


- 한양대학교 강사

한무희는 한양대학교 무용과 한국무용을 전공한 졸업생으로 1981년 처음 창단한 이래로 4대의 회장을 거쳐 현재 5대회장을 오를자 교수가 맡아 34명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무용제전, 인천무용제, 창무기획공연, 서울무용제등의 권위있는 축제전에 참가하였고 한무희 자체 기획공연등을 통하여 꾸준한 작품활동을 해오며 현재 개성있는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단체로 자리를 잡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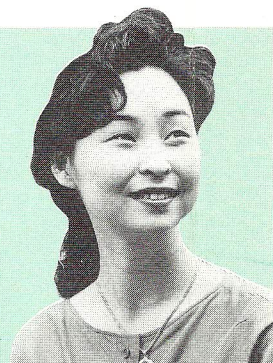
정혜진 무용단



- 예원학교 교사
- 미래춤학회 이사

한국인의 정서에 근간을 둔 한국 창작 무용에 다각적인 접근을 꾸준히 해 온 정혜진은 유행을 타지 않으면서 독선적이지 않아서 관객의 마음속에 쉽게 파고 들어 움직여 놓으며, 오랫동안 여운을 지니게 해주어 왔다. 빈곤한 창작무용 음악 작업에서부터 작품의 세세한 분야에 이르기 까지 타고난 재능이 발휘되며, 무용 단원 모두 추구하는 바 목표가 분명하여 자유로운 시도를 통한 접근 방법이 항상 싱싱한 작품을 만들어 내어 기대감을 준다. 1990년 "내 얼굴, 내 얼굴"에서는 일상 생활에서부터 높은 형이상학적 주제를 단조로운 색조 속에서 쉽게 표출하는가 하면 1991년 "하늘 냄새", 1992년 "도라지꽃"에서는 군더더기가 없이 절제된 체계로 단순화, 상징화된 처리가 돋보였으며, 한국인의 내재된 심정과 공명되어 성숙한 작품으로 높이 평가 받았다. 앞으로도 그의 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정혜진 무용단의 활동은 무용계의 탄탄한 기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창무희(김용복)



- 이대평생교육원 강사

우리나라 전래의 전통춤을 토대로 한 오늘의 춤을 만들기 위하여 김매자 선생이 이화여대 무용과 제자 5명의 단원과 함께 1976년 12월에 창단. 현재 무용수 및 Staff을 포함하여 60여명의 단체로 성장하였으며 1979년 뉴욕공연을 시작으로 최근의 독일 오페라 하우스 및 이집트 카이로 오페라 하우스 공연에 이르기까지 세계 유수의 공연장과 페스티벌을 통해 민간사절로서 우리춤의 신명과 얼을 세계에 전파해 오고 있으며, 창무 큰 춤관 등을 통한 한국무용의 표현영역을 넓혀 활발한 국내활동을 통해 무용의 대중화에도 힘쓰고 있는 한국무용단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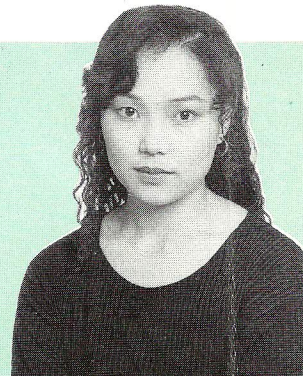
최은희 무용단



-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 (사)한국무용연구회 이사

최은희 무용단은 82년부터 전통과 현대와의 접목에 창작의 축을 두고 15년간 타장르간의 만남등을 통하여 끊임없는 실험작업을 지속해 오면서 개성적 춤작가로 주목받아 그동안에 일련의 작품들 가운데는 무속의례의 형식을 빌어 존재의 의미와 삶의 의미에 대한 되새김을 풀어내고 새로운 삶으로서 재충전과 활력을 표현한 작품이 주류를 이루면서 그동안 개인 공연과 창무춤공연 국내외 저명한 축제전인 한국무용제전, 부산 여름무용 축제, 대학무용제, 서울무용제, 현대춤 작가 12인전, 동서베를린 민속문화축제, 대마도 아리랑 축제 참가등 다각적인 활동으로 부산축제의 활성화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지역문화 발전에 사명감을 갖고 보다 한국춤의 질적향상을 꾀하는 생활속의 살아있는 예술로써 춤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설무리(송혜순)



- 설무리 부대표

설무리는 수명여대에서 무용(한국무용)을 전공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1983년에 창단되었다. 창단 첫해에 유럽 6개국 순회 공연을 시작으로 꾸준히 정기 공연을 진행하면서 다수의 무용제(한국무용제전, 무용한국추천 기념공연, 대한민국무용제)에 참가하였고 대한민국 무용제에서는 안무상을 수상받은 바 있다. 1990년 문예진흥원의 후원을 받아 지방 순회공연을 다녀왔으며 수차례 청소년을 위한 무용 강좌를 개최한 바 있다. 동남아시아 아스팩 회의에 참가 공연을 가졌고 중국 심양시 초청 국제댄스페스티벌에 참가하기도 했다. 현재 소극장 출판을 개방하고 의욕있고 뜻있는 후진을 양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항상 배우고 연습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끊임없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